

마지막 날의 구원과 복

요엘 2:18-32

【인도자를 위한 예화】

1980년 5월 18일 주일 아침 8시 31분, 미국 워싱턴주 세인트헬렌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커다란 말굽 모양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2만 개에 달하는 위력으로 산 북쪽 약 1,150km²가 순식간에 초토화됐으며, 이때 발생한 엄청난 폭발음은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밴쿠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세인트헬렌스 화산은 1857년까지 작은 폭발 외에는 큰 활동이 전혀 없었고, 1980년에 와서야 화산성 지진 다발이 관측된 이후 지진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1980년 3월부터 화산 폭발 징조가 본격화되자 미국 지질조사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대피할 것을 권고했고,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끝까지 피신하지 않고 산기슭에 남아 있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이는 해리 로버트 트루먼(Harry R. Truman)으로 재난 영화인 <단테스 피크>에 등장하는 노인 루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산 폭발의 징조가 나타나고 수많은 권고가 있었음에도 그는 무시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징조와 사인으로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사인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인식하며 반응하고 있나요?

【본문 읽기】 요엘 2:18-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요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이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요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엘은 유다 제8대 요아스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이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유다 왕위에서 몰아내고 요아스를 제8대 왕으로 세워 다윗 왕가의 왕권을 복원하는 정치적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아하시야와 아달랴 같은 선왕들이 남긴 바알 숭배 풍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종교 개혁을 주도하던 요아스왕마저 의지가 약해져 백성의 우상 숭배를 방임했고, 결국 선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또한 애굽, 블레셋, 에돔 등 주변 이방국과의 팽팽한 세력 확장 경쟁 속에서 남북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우상과 세속적 기류에 휩쓸리며 세상 나라 중 하나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메뚜기 재앙은 유다 전역을 황폐하게 했으며, 여기에 극심한 가뭄까지 더해져서 백성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메뚜기 재앙이 암시하는 '여호와의 날'의 의미, 곧 전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의 비전을 보이시며,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보내신 큰 군대를 무엇이라고 기록했나요?(25절)

하나님이 보내신 큰 군대는 메뚜기, 느치, 황충, 팔중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떼 습격이 흔하지 않지만,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 지방에는 수천 마리의 메뚜기 떼가 전역을 휩쓰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메뚜기 떼는 지면을 덮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나고, 땅에 있는 식물과 밭의 곡식과 채소, 심지어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우고 그 씨를 말려 버립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도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애굽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출 10:13). 본문에 등장하는 느치, 황충, 팔중이는 메뚜기를 각기 다른 습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 다른 메뚜기 떼가 네 차례나 습격해 황폐화시킨 유다 민족의 땅을(1:4) 이제 하나님이 그 먹은 햇수대로 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메뚜기 재앙이 자연재해를 넘어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 주는

것이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것을 전합니다.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전해 줍니다.

적용과 나눔 I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며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1:11). 또한 이러한 지진과 기근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3:8). 오늘날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지진, 홍수, 쓰나미 등 이전에 없던 심각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창 1:28)에 순종하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의 죄악 된 본성으로 인간의 안위만을 추구한 인류 문명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러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하나하나를 모두 인류 종말과 연관 지어 지나치게 부풀려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들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며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와 날’이 언제 임할지 그 누구도 모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막 13:33).

관찰과 묵상 II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 얻을 이들은 누구인가요?(31~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전 인류 가운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다른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배타적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보편적 구원관을 전합니다. 모든 인류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명백한 기준도 함께 제시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분과 계급과 혈통과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의 원어적 의미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자애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리키며, 이러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고 이해하며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은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짐 받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적용과 나눔 II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요?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현대인은 넘쳐 나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며, 여러 전문 분야 강의와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를 손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한 가르침과 설교 말씀이 그저 마음의 감동으로만,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되니,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약 1:25). 하지만 이러한 일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6)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행함과 실천이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